



버스 준공영제 대안 없이 혈세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연간 1000억원 투입에도 수송분담률 제자리걸음 의회 “밑 빠진 독 물 붓기...가시적 성과 없어” 질타

제주 버스 준공영제가 1000억원의 혈세 투입에도 전 노선 적자에 더해, 이용객은 제자리 걸음을 보이는 등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제주도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8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 제396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는 제주 버스 준공영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은 “최근 준공영제 폐지부터 시작해 완전 공영제, 준공영제 보완 등 준공영제 관련 이야기가 많다”며 “담당 국장으로서 준공영제 관련해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학승 도 교통항공국

장은 “보완을 거쳐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정은 많이 들고 있지만 교통 소외계층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으므로 경영 합리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지속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송창권 의원은 “그런 대답을 할 정도가 되려면 성과가 나와야 한다”며 “준공영제 이전보다 버스 수송분담률이 높아지는 등 눈에 보이는 개선점이 있어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예다 도민 혈세를 일반 사기업에 먹여 살려주는 꼴인데, 성찰과 다른 대안이 없다”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이어 “내년이 지방선거다. 누가 도지사가 되는 준공영제가 지사의 공약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새 도지사가 (준공영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지



지난 18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6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1차 회의에서 매년 1000억원이 투입되는 버스 준공영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만, 이런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는 큰 혼란이 생길 것 같다”고 우려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도내 버스는 2017년 준공영제 도입을 기점으로 총 527대 87개 노선에서 850대 197개 노선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도내 버스업체 7개사에 지원된 예산은 1002억원으로, 전년도 962억원보다 40억원 늘었다.

하지만 버스 수송인원은 대중교통이 개편된 2017년 5638만1344명에서 2018년 6245만2899명, 2019년

648만5997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보다 1447만명(22.3%)이나 급감했다.

뿐만 아니라 버스분담율은 2017년 14.7%, 2018년말 14.2%, 2019년말 14.6%로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3억원을 들여 ‘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 용역’을 추진 중이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이광재 “공항 인프라 대폭 확충해야”

1박 2일 일정 제주 방문 도내 현안 입장 밝혀 “법인세 대폭 인하 통해 첨단기업 유치 가능”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원주시 갑)은 20일 “제주가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항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2공항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의원은 ‘공항 인프라 대폭 확충이 현 공항 확장을 뜻하는 지,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뜻하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즉

박혀 결정해야 한다. 주민들에게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민들은 공항 확충으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많아질 경우 오·폐수와 쓰레기 처리 문제 생활 비용 상승 등을 걱정하는 것 같다”면서 “환경문제 처리 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률을 지금보다 대폭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의원은 법인세를 대폭 인하해 제주에 세계적인 첨단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는 2.0 단계의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진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세계적인 첨단기업이 제주에 와야 하는데 21~25%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법인세를 싱가포르와 홍콩수준으로 내리면 첨단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이 의원은 제주에 미래형의 교육과 주거가 결합된 복합단지

와 대학교 기업이 공존하는 대학도시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를 찾은 이광재 의원은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4·3유족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제주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제주도민과의 희망 만들기-우리 모두가 별처럼 빛나는 나라’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 강연에서 이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권을 부여해야 하며, 전세계 모든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이 머물 수 있는 평화의 장이 돼야 한다”고 말

이상민·강다혜 기자

사립학교 내 국유지 대부료 면제 추진

송재호 의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예정 남녕고는 교내 부지 사용료 8900만원 캠프에 지불



국내 사립학교 내 위치한 국유지 대부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

원(제주시 갑·정무위·사진)은 “코로나19의 장기화, 전면 무상교육 시행으로 일선 학교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계획을 20일 밝혔다.

송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6개 초·중·고등학교가 교내 국유재산 부지 사용에 따른 대부료로 캠프에 약 12억 5700만 원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동대문구 경희초등학교가 1억 6500만원으로 대부료 액수가 가장 많았고, 제주 남녕고등학교도 8900만 원의 대부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주 오현고등학교 등은 교내 국유지가 교육 시설이 아닌 기타 목적인 ‘묘지’로 등록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재정부와 캠프는 원칙적으로 국유지에 사용에 따른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정산하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립학교의 경우 각 지역 교육청에서 대부료를 부담하지만 사립학교는 자체적으로 대부료를 조달한다는 점에서 면제 또는 감면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출마 선언 속속... 대선시계 짹짹

추미에 23일·이재명 이번주 내 출사표 던질듯 야권 주자 윤석열 27일 전후 출마 가능성 제기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속속 이뤄지면서 선거 분위기가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당헌상 민주당은 차기 대선일 180일 전에 대선 후보를 확정하기 위해 이달 중 예비후보 등록을 받는 데 이어 다음달 예비경선 일정에 돌입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 양승조 충남도지사, 이광재 의원, 최순환 강원도지사,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세 걸출에 나서고 있다. 뒤를 이어 추미에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는 23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다.

추 전 장관은 20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오랜 고민 끝에 결심했다”며 “23일 유튜브에서 출마 선언식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야권의 유력 대권주

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항마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유력 주자 중 명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21일이 당 후보 등록일임을 감안하면 빠르면 이번 주중 출마 선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김두관 의원도 공식 출마 선언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다.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대선 경선 흥행을 위해 경선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논의의 향방이 주목된다. 경선 일정을 연기할 경우 후보 등록부터 시작해 모든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는 27일을 전후로 대선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지난 15일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부미현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광재 의원이 2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도민과의 희망 만들기’를 주제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부모가족 자립 정착 지원 30가구 대상·1곳당 300만원

서귀포시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3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1곳당 300만원씩 총 9000만원의 ‘한부모 가족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순위 자녀 연령 초과로 보장이 중지된 가구 12순위 소득인정액 80%(4인

기준 390만1000원)이내의 보장 중 지원 가구이다

올해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20세대 6000만원)와 비교해 증가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한부모 가족은 오는 24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오는 30일 확정된 지원 대상자에게 한부모 가족 자립정착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상민 기자asm@ihalla.com

전기기능사(필기+실기)취득과정

대상 실업자·재직자·일 반
교육기간 2021.07.03~2021.09.26
교육시간 15시~22시(점심시간 포함)
교육내용 전기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대비
문의 725-5545

커피 바리스타 과정

대상 실업자·재직자·일 반
교육기간 상시 모집 중
교육시간 오전, 오후, 야간 매일 3시간씩
교육내용 자격증 취득 및 창업 관련
문의 725-5545

컴퓨터(OA관련, 전산회계) 과정

대상 실업자·재직자·일 반
교육기간 상시 모집 중
교육시간 오전, 오후, 야간 매일 3시간씩
교육내용 OA관련(사무자동화, ITQ, 컴활2급), 전산회계
문의 725-5545

2021년 제1회 전기기능사실기 9명 응시 9명 합격(100%)
문*민, 한*남, 강*열, 김*현, 옥*환, 이*석, 정*안, 최*영, 최*혜(총9명)

제주직업전문학교
제주시 서사로 81 (삼도1동) 중앙여중 정류장, 진영마트 맞은편
064)725-5545 http://www.jejuvs.co.kr

Silver Smile

노인학대신고 24시간 상담전화

1577-1389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www.sgpnoin.org
운영법인 : (사)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

만감류 매달기! 다인 굴고리

8.5cm + 3cm + 5.5mm =

굴고리 안파고정판 안파밴드 굴고리 작업세트

미리 걸어두고 편하게 매달자! 굴고리 사용 방법

-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이후엔 던지기 생략가능
- 높은 효율! 굴고리 한 개에 15개 이상 매달기 가능
- 미리 작업! 매달기작업 시중 전에 미리 던져 둘 수 있음
- 편리한 수거! 수확 후 유인판을 간단히 수거 가능

‘안파고’드는 유인줄 ‘안파고’

+ 굴, 단감, 대추, 사과, 체리, 복숭아, 자두, 배, 호두 등 모든 과수나무의 처진 가지, 늘어진 가지 해결!
+ 원터치&초간편 길이 조절.
+ 가지에 걸고 고정판에 끼우면 작업 끝.
안파고 소 110호(1m), 115호(1.5m)
안파고 대 210호(1m), 215호(1.5m)

가치, 까마귀, 새 쫓을 때! - 다인독수리연

4m플래 세트 (대형연, 소형연)
7m플래 세트 (대형연)
질긴 천, 강한 부품 비숄해도 다르다!

굴고리, 유인추, 유인줄, 이클립 기타 영농자재

DA IN 다인산업(주) 경북 예천군 보문면 산단길 14-28
상담 및 문의 054-652-3725, www.dainfine.com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신) 一(일) 祚(조)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017 포크레인 임대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화장실 리모델링 / 아파트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도배 / 장판 / 물딩 시공
누수탐지·가스식 정진기식 수도배관 누출정소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